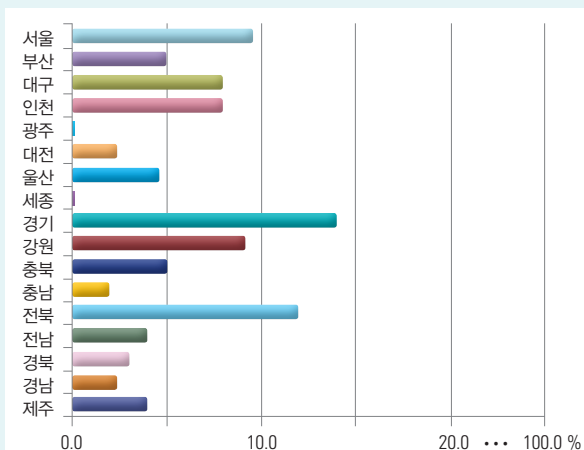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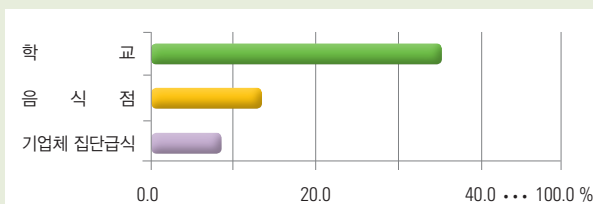
# ‘빅데이터 분석’ 식중독 발생 사전예측 4월

경기·전북·서울지역, 학교에서  
**노로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발생이  
높을것으로 예측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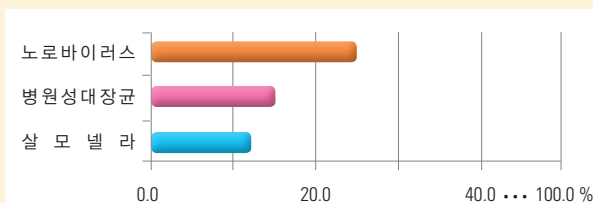
## 발생 지역 예측

- 경기(13.8%), 전북(11.6%), 서울(9.9%) 지역  
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  
※ 경기(수원, 안산), 전북(전주, 익산), 서울(서초, 강서)  
특별히 주의 필요



## 발생 장소 예측

- 학교(34%)에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 
예측됨  
※ 음식점(12%), 기업체 집단급식(9%)



## 원인 병원체 예측

- 노로바이러스(23%)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 
높을 것으로 예측됨  
※ 병원성대장균(14%), 살모넬라(12%)

\* 식약처 13년간('02~'14) 식중독 발생 현황 및 국민건강보험공단(90일 통계기준) 진료동향·소셜 네트워크 분석

\* 빅데이터 분석결과 4월은 학교 식중독 발생이 매우 높은 달입니다. 경기·전북·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작년에 식중독이 발생한 지역  
광주·대구·대전·울산·인천·경남·경북·충남·충북 등에서도 학교 식중독 사고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